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의결안건 제124호 관련)

2021. 6. 16.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0:55~19:09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38호~제139호, 보고 제32호~제33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124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및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A의 목적은, □□□□□(주)의 목적은 오로지 신약 허가신청임. 신약허가 신청이라는 것을 온갖 공을 들여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합병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위해서 또는 은행에 돈 빌리는데 담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거짓말해서 무리수를 두고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가정된 얘기임.

- (보고자) A의 부정적 임상결과 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피조치자는 임상 3상 결과와 관련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문답 결과라든지, E-mail 내용 등을 볼 때 부정적 임상결과를 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됨.

- (보고자) ▣▣▣▣ G 대표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A에게 6월 24일경 임상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6월27일 K가 A에게 E-mail을 통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6월27일에 K가 A에게 발송한

E-mail에 따르면 회사 내부적으로 임상결과를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이 되고 있음. 피조치자는 ●●●●●●● Meeting 의사록 주요내용 공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거래소의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임.

(12시23분 정회)

(12시30분 속개)

- ▶ (진술인) 제가 6월24일에 G에게 임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6월26일 11시15분에 받았고 모든 E-mail이 다 그것을 입증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임원들도 다 증언하고 있는데 왜 저희 임원들의 증언은 안 들으려고 하고 대질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시고 “G의 말이 맞으니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12시42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위원) ●●●●●●● 회의록상의 결과는 실패/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만드셨을 때 “●● 간다.”는 표현을 쓰셨음. 이 사실(fact)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 (진술인) ●●● 갈 수 있다는 것이 [redacted]의 의견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도자료 냈던 것이 “우리 ●●● 갈 수 있다.”, “●●● 간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신약 허가를 승인(admission) 받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완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아직 과정에 있다, 실패한 것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제목(title)을 뽑다 보니까 “●●● 간다.”고 한 것을 “지금 당장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갈 수 있다고 썼느냐?”고 보신다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경영자로서 시장에 내는 메시지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 Meeting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신약허가 신청(application)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그것이 축약되어 표현이 나오다 보니 “●●● 간다.” 이렇게 되었던 것임.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fact)에 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답변임.

- (위원장) 진술인 측의 설명 이런 것도 따지고 들면 봐야 될 것은 많음. 해당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금감원도 설명하는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람. 오늘 진술인 쪽에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오늘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집중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

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제가 지난번에 진술한 것은 주식자금 4억 원이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급히 마련한 것이 아니고 2018년 정보생성 이전에 이민 투자금 용도로 요구해서 받았다고 진술했음. 또한, 2018년 1월31일 투자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환급 받기 그 전날 1월30일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진술인은 20억 원 상당, 아내는 현금 3억 원 포함해서 7.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매입자금이 다급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관련자 진술 그다음에 제 자금내역, 주식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서 제 진술에 소명자료가 모두 부합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은 다 봤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2월8일부터 2월22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그때의 매매패턴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 3월13일부터 3월21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쪽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수, 매도를 계속하셨음. 회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를 놓고 보면 다른 기간하고 조금 구별되는 것이 대부분 □□□□□(주) 관련된 주식을 구입하셨는데 다른 기간에는 다른 종목들을 구입하셨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H씨 개인 계좌나 아내 분의 계좌와 회사 계좌를 보면 전혀 다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없었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제가 그 당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매입하게 되었던 것 같음.

○ (위원) 다른 때에도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해서 매입하셨을 것인데, 저의 질문은 그 기간과 다른 기간이 구별되는 점은 타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없다는 것임.

▶ (진술인) 왜 그런 것인지, 제가 그 기간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생각이 나지 않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